

오세훈표 도시재생 본격 시동

보존→개발·정리 방향 대전환
주거지·중심지특화 재생으로 간소화
2026년까지 2만4천호 공급 목표
김포공항 일대 등 민간개발 유도

오세훈표 도시재생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으로 2026년까지 주택 2

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약 6년간 시비·국비 7300억원, 민간투자 6조3800억원 등 총 투자 규모는 7조900억원으로 전망했다. 시는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을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하고 실행 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

(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도아주택'도 본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한다. 주거지 재생은 한옥밀집지역·고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정비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속한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개발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지 활성화 방식을 적용해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에서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 개발로 신산업을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서는 기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양명택 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진기자 limhc@jeonmae.co.kr



연기로 뒤덮힌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홍기원기자

세종시, 효율적·실현가능 자원순환정책 확대

종이팩·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폐합성수지·플라스틱 프리 등 추진

세종시가 효율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이준희 시장은 17일 오전 이같은 '생활폐기물 자감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대책은 아이스팩 재사용, 종이팩·투명페트병 등 별도수거, '용기내 세종' 운동 확산, 폐합성수지·플라스틱 프리(Free) 캠페인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6년 99톤에서 지난해에는 187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내 200여개의 수거함을 통해 월 약 3톤의 아이스팩을 수거·세척해 9개 사업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300개 수거함에서 매월 약 1.9톤의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CI프래쉬웨이, YMCA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 아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유·주스 등의 종이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폐기물로 별도 회수하면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단독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제도를 꼭 넓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기내 세종' 이벤트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용기내가게'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며, 학교·환경단체·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해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세계자연기금 등이 플라스틱 자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자감 및 플라스틱 프리'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세종시세미올, 세종주택관리사협회, 인사이클링 민간기업 등과 폐합성수지 처리와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재사용으로 자원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준희 시장은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추진하겠다"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널리 재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세종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대상 공모·선정해야"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해야 한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17일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시·도지사들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임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

려 문화예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의 미술관 건립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시설 3% 이상, 미술관은 5%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있어 비수도권에 이건의 미술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철호 울산시장(협의회장)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술관이 많은 국민에게 공감, 향유되길 바라는 고 이건의 화장 뜻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nyd@jeonmae.co.kr

경남도-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손 잡았다

경남도와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남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서에 관여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공동협력, 남북교류 활성화 공동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 마린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청년 문제 대응 및 청년정책 협력과제 발굴, 시·도간 갈등 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 등을 약속했다.

수도권-비수도권 협력 정책협약식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시의적절"
경선 연기 등 정치현안엔 묵묵부답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협약식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능한 지역부터 개별적으로 협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협약은 수도권에 과밀 과해가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라며 "최근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하는 온갖 갈등과 절망, 좌절의 원인은 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성장의 잠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 불균형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발생한다"며 "지방은 소멸 걱정, 제가 소속된 수도권은 폭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소멸위험을 받는 지방에 우선 투자하고 정책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도 국가적 지원을 담보하면 그곳이 필요한데 김 지사가 아이 디어를 낸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유호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지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선 연기 주장과 관련 입장 등 정치적 현안에는 입을 다물었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성남시, 제3회 추경 4117억 확정... "예산 신속 집행" ▶2면 | 광진구, 자치구 첫 백신접종 어르신 '돌봄백신' 호응 ▶7면 | 서부발전,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선정 ▶14면

2022 ~ 2023년
울진방문의 해

바닷속을 거닐다
국립해양과학관

울진
동해바다 위를 거닐다

하늘을 달리다
왕피천케이블카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단신브리핑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에너지기업 15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한판)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외 인증 획득 ▲전 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며,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시스템(ms.gt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www.gg.go.kr) 광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민기자 han-y@jeonmae.c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3개 지자체 선정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도내 3개 지자체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고성군, 산청군, 함안군은 작년 10월부터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했으며 도는 계획수립을 위한 공모 신청을 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전문가 교육과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정주 여건개선, 농촌경제활력제, 지역공동체활성화의 공동의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며, 사업비로 1개 지자체별 국비를 최대 300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포함 최대 4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목록과 예산 규모 등은 보완, 검토,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고성군은 ‘근지열 원자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멀리서 사람이 온다는 구호와 연계 순환을 통한 혁신 플랫폼 구축에 집중했으며 산청군은 읍면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 생활서비스를 통한산청을 구호로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함안군은 대한민국 중심이 특별시 웰니스 협정을 구호로 합천형 355생활권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수원 연화장 시설개선 1단계 완료

경기 수원은 ‘연화장 시설개선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8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정비했다. 1단계 공사는 장제시장·주모역집 제설실 증축,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등이었다. ‘유가족 편의’에 초점을 맞춰 민소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전면 리모델링한 장제시장은 연면적 7380㎡ 규모에 기존(10개)보다 민소 수가 2개 늘었고 또한 민소 내에 유족 휴게실·전용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했다. 민소·접객실을 임시(1식)으로 조성했고 간소한 정체를 원하는 유족을 위해 ‘접객실 없는 민소’를 만들었다.

또 지하 주차장은 추모의 집(봉안당)에 실제 제설실 7실을 설치해 가족끼리 독립된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는 11월 말 완료예정인 2단계 개선 공사는 봉안·문화동 신축, 순화원 증축, 토목·조경 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수원/ 박순자기자 spark@jeonmae.co.kr

성남시, 제3회 추경 4117억 확정

올해 예산 3조1896억 보다 12.9% 증액 3조6013억 편성
노동취약계층 상해·신재보험·유급병가, 인영지원금 등 집행

경기 성남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4117억 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예산은 3조1896억원보다 12.9% 늘어난 총 3조6013억원으로 편성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3회 추경으로 노동취약계층 단체 상해보험 가입 2억4000만원, 신재보험료 지원 2억3700만원, 유급 병가 지원비 1억

500만원 등을 집행한다.

또 한약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임명하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3억7000만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6억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40억원을 집행한다.

시 예산제정과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만원도 주요 포함했다.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비 24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3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9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3억7000만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6억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40억원을 집행한다.

시 예산제정과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서울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체결... 전례없던 국민권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드론서비스 선도도시 구현 힘 모은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자 협약체결·착수보고회
DATA-NETWORK·시각 기반 안전관리·교통·소방서비스 등 추진

세종시가 드론서비스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17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사업자, 한국도자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드론실증도시 세종컨소시엄의 참여사업자인 드론시스코퍼(주)경기항공, ㈜한림어셈블, ㈜서우, ㈜케이이스, ㈜CSITM의 대표와 주요처인 LH세종특별본부장이 참

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참여사업자는 실증서비스 계획추진 및 현장안전관리, LH세종특별 본부는 5-1생활권 건설현장 지상 인프라 제공·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실증과제는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서비스, 도시비밀숲길 생육모니터링서비스, 불법 역곡의뢰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배출 서비스 등이다. 또한 고층건물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 서비스, 인공자능 분석기반 도로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3D드론 디지털 트윈 관리 플랫폼, 드론 도킹스테이션 표준이전·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이달 착수보고회에 이어 이달 말까지 모든 드론운영 시험비행장에서 기계안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내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의 시정은 “드론실증을 우리 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세종시를 드론서비스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영준기자 yjyou@jeonmae.co.kr

‘아미존’서 경북지역 중소기업 제품 ‘인기몰이’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미존’에서 경북지역 수출 중소기업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미국 아미존 온라인소매 플랫폼에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수출 중소기업 67개사의 제품을 입점시켜 왔으며 올해는 매출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배성갑 도일자리경제실장은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조건과 아미존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현지 시동인만큼 1만4400달러에 달하는 판매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주차에는 아미존의 전세계 티백자 부문에서 판매순위 27위를 기록했다. 금강송 숲의 추출물을 활용한 적송유 캡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송나라 역시 올해 처음 미국 아미존에 입점해 4월부터 매출이 발생하면서 5월까지 5000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또 예천이무이참기름은 들기름의 건강진정 효과가 알려지면서 작년 총매출은 1000달러였으나 지난해 누계 2000달러가 판매되면서 현재까지 1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판과 리아도 작년 총매출 2만3500달러에서 지난해까지 3만1000달러의 매출을 보였다.

울진농원 솔방울 저산달 1만4500 달러
美 소비재 무역력 증강 강점식품 등 판매 호조

장에 판매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주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난 타격을 위해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성장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신동대기자 shind@jeonmae.co.kr

최문순 “1명 채용시 5100만원 지원” 강원형일자리 확대 건의

경원도가 ‘강원형 일자리 취업 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강원형 일자리 취업 사회책임제’는 정규직 1명을 뽑아 3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최대 5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문순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을 만나 이 제도의 전국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한다.

이 제도는 세부적으로는 1명 채용 시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금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용자 및 3년간 고용 유지 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6000여개 기업에서 1만7000여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춘천/ 김영민기자 youngk@jeonmae.co.kr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1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송선·동리동 일원 605필지 98만950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8만2270㎡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승규기자

임택수 청주부시장, 국비 사업 챙기기 총력

임택수 충북 청주부시장이 2022년 국비 사업 챙기기에 분주하다.

17일 임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서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주시 성장 동력에 대한 재원확충(그린뉴딜사업, 신성장 사업 등)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 예산실 방문을 통해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상사업(40억원),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47억원), 순환경계 산업화 기술지원사업(50억원), 청주시테크노밸리발전전략지원

공과시설 설치사업(80억원), 신원동고분군 지역 구역 토지보상(37억원), 자생성수도 비상공공광 구축사업(29억원) 등 총 9개 사업(889억원)에 대한 예산변영의 사업성을 적극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기재부에서 심사 중인 만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실·국정들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기재부를 수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가족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kyang6@jeonmae.co.kr

WeConnectScience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LG 화학

플라스틱, 지구와 공존하다

LG화학은 유한한 자연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LG화학 석유화학사업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GTX-D(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의 강동구 경유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수희 국민역사박물관(감) 당협위원장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 삶을 가꾸어 가는 동반자

태안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태안농협협동조합 한상근 조합장 외 임직원 일동

GB해제·용산기지·군 공항개발 등 포함 '귀추주목'

송영길 민주당대표 "주택 공급 폭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심터미널 등 파격방안 구체화... "수십만호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공급 폭탄을 밝히면서 그동안 금기시했던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와 군 공항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터미널 부지 활용 등의 파격적 방안이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집값이 전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위원을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과감한 주택 공급의 확대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시장이 질릴 정도'의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300만㎡ 가운데 20%인 60만㎡를 택지로 조성해 고밀 개발로 8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3기 신도시 지역 시설 용지 용적률 상향과 복합 개발, 도심 내 군 공항과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교정 시설 등 기반시설의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1만여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181만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공급폭탄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김영하

(서울 50만호)의 공급 방안을 내었으나 계획 추진이 늘어진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값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에 김포공항은 물론 성남 서울비행장, 수원비행장 등도 통합이나 이전을 통해 택지

로 개발할 수 있다. 한강 변의 강변북로나 88 올림픽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부터미널과 양재 화물터미널 등

도심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경이기자 seo@jeonmae.co.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간 한주도 빠짐없이 올랐다

부동산원 조사서 104주 동안 8.17% 올라...서초구 13.12% '최고 상승' 래미안옥수리버튼 84㎡ 보증금 2년전 6억5천만원→이달 12억원 '경총'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2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 동안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대입 정식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초부터 상승 폭을 줄이기 시작해 작년 2~5월 0.05~0.01% 수

준으로 오름폭이 둔화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작년 7~12월 서울 전셋값은 최소 0.08%에서 최대 0.17% 수준으로 매주 크게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3.1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12.87%)와 송파구(11.

38%)가 그 뒤를 이어 '강남 3구'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작구(10.51%),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 신흥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지난달 14일 보증금 20억원(2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며 2년 전(12억5000만원 수준)과 비교해 7억5000만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튼 전용 84.51

㎡도 2019년 3월 보증금 6억5000만~6억6000만원(16층·12층)에서 이달 11일 12억원(12층)으로 2년여 만에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지난 달부터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이주수요로 물건이 귀해지면서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동작·성동구로도 수요가 옮겨가며 전세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다.

4월 마지막 주 보험세(0.00%)였던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5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0.01~0.04%~0.07%~0.16%~0.28%~0.39%) 매주 상승 폭을 크게 확대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7월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8월엔 주요 사업장도 자체접종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접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이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말부터 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지자체별 특성과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접종을 실시한다.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별 배정량량 범위 내에서 사회밀수인력, 고위험군, 접종 소외계층 등 백신을 배정할 대상과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접종은 보건소나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구체적인 접종 일정은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50대 등 3분기 우선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에는 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의 자체접종도 이뤄진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정부 '지역별 특성' 고려 접종·대상자 편의 도모

근무하거나 상시 출입해 접종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체적인 접종 대상은 사업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한다.

집행력이 백신과 주사기를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공급하면, 부속의원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하고 접종자를 등록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지자체와 주요 사업장의 개별적 접종 방안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주민이나 기간산업 종사자 등을 접종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만 18~49세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추진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과 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체 자체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제 1회 금산삼계탕 축제

2021. 7.10(토) ~ 7.11(일)
금산인삼관 광장

약초에 바친 삼계탕
인삼 약초의 고향,
금산에서 만나는
전국 최초의
삼계탕 축제

금산군 | 금산축제관광재단



소병철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행안위에 통과되자 유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진상 규명 첫발·유가족들 인내의 결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 "반백년을 넘겨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뒀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처리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웬만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 법안 처리 전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당내 여러 사정이 있지만, 후반기에 대한 대승적 배려 차원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동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별법 상정이 예정된 16일 오전에도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어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명수 국민의힘 법안소위 간사와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문안을 만들어내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그간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김희재, 서동용, 주철현)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노력해 준 결과이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서 오랫동안 국회의 논의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나주시와 화순군이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함께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연말까지 '농촌

공간계획'과 '농촌생활권 계획'을 보완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한다. 신 의원은 "나주와 화순에 각각 국비 300억 원 투입으로 장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법대홍기자 Beom@jeonmae.co.kr

윤석열·안철수 '마이웨이'...야권통합 난항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 '선거운 통합' 관측 윤석열 "여야 협동에 일질 대응 않겠다"

안철수 "합당 실무협상 빠를수록 좋다" 이준석 "이건 노출되는 건 피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합류가 확실사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가 독자노선을 밟을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제1야당 밖에서 몸값을 높이면서 야권통합의 조건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벌써 일각에선 검증의 갑질을 피하면서 신비주의와 관변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를 이루는 '선거운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윤 전 총장은 17일 대변인을 통해 "여야의 협공에는 일질 대응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기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합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신'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 입장에서 '간보기 정치'라며 입당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어느 쪽도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내 갈 갈만 가고, 내 할 할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소통을 늘리는 등 입당이 가까워진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윤 전 총장은 입당 시기를 두고도 "더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총장 측 이통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까지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나 진보나' 식의 편 가르기에는 구태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합당 실무협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표면적으로는 변함없는 합당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실무협상단 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환기자

안 대표는 여기에 "입장을 바꾸면(비례표고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해 베풀기를 보였다. 안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당명 변경 논쟁은 사퇴"라며 "수시로 강변을 바꾸는 것은 구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결국은 합당 순간 '원오브레임'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특유의 시간끌기 전략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나오자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의 움직임에 이 대표는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인 우리 당, 이권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 이권이 자주 노출되는 건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원활한 야권 통합 테이블 마련을

위해서는 정교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과는 지난 13일 당선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타인'을 틈틈이 필요할 경우 직접 물밑 소통을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두고도 실무협상 재개가 지는 이견이 없는 가운데 같은 지역구를 둔 대표와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김기현 "일자리 정책 성과...고용시장 정상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 걸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일자리 정책의 성과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인건국제공정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60대·80년대 학번·8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엎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관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혜택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환기자

그리면서 "80년대 '귀족의 갑질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갑질대오', '세습의 갑질대오'가 됐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했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협력역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사이었으며 정부의 스텔러스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자국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백신화론 끝내달라달라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공공"의 가치 위에 놓인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가기준 12%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성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하여선 "불안한 청년들의 지회상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자로 내몬 것"이라며 기성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과

세 시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선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원용 1.2기 즉시 가동과 신원용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험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론이 최종적으로 좌우한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붙임의 정치'를 거둔다. 이어 "산업을 이룩한 세계, 민주화를 쟁취한 세계,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게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며 혁신의 비전을 열어 정권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與, 파격 경선룰 도입 흥행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을 위해 각 캠프간 이견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경선 방식을 도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당헌·당규 내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다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캠프에서는 슈퍼스타, 미스터 트롯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이나 토론 배틀, 집단 합숙, 프레젠테이션 경연 등을 아이디어로 내고 있다. 후보들이 각자 아바타를 만들어 아바타들이 대신 토론하게 하는 메타버스 방식도 거론된다. 이날 전 대표 측 운영진 의원은 전날 당 의원들에게 이런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뒤 "역동성이 가장 큰 무기다. 당원 투표와 실시간 시청

자 투표가 합쳐져 라운드별 탈락자가 나올 때 국민들은 그 역동성에 몰입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명 인원의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 룰(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이나 본경선 룰(선거인단 모임을 통한 국민 경선) 자체를 바꾸기 어렵더라도, 국민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벤트성 방식보다는 후보자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토론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 내용을 부각할 방식을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내 효과적 수단 다 쓸 것" 경선 일정 현행대로 유지 결론날 듯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표 측은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당헌·당규가 있고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당부위원회 의결로 달라질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거다. 본말이 전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도부 관계자는 "'상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달라져 경선을 연기하는 합치 않다"며 "사유안이 되는 한 연기는 못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경선 일정 문제를 이번 주 내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100년 동행. 힘내라 농업·농촌! 함께하는 노안농협! 농업인과 함께 노안농협이 같이 갑니다. 전남 나주 노안농협은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금융편의와 서비스 제공하는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노안농협 주소: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23 전화: 061-335-8191-3

더불어민주당 '상위 2% 중부세' 진통 불거피

지도부·반대파, 표결 가능성 염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중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기준안을 그대로 율령 예정이지만, 지난날 말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터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반대표 의원들을 물밑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선투위 관계자는 "조정안은 17구 1주씩

에만 적용된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충하지 않느냐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진표 부동선투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중부세 조정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서 예정이었다. 이에 반해 반대파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PT 맞대결을 펼친다. 진 의원은 "지도부는 중부세를 내려야 대선에서 중도층을 잡을 수 있고 부자세에도 아니고

주정한다"며 "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와 반대파 모두 표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여의치 않으면 표결을 해서 지든 이기든 그 결과를 감수하려 한다. 그게 민주당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표결로 가면 그것은 지도부 재산 인과도 같다. 과연 그렇기까지 할지는 미지수"라며 "하더라도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만약 지면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탄소중립 시대 주민 참여 '그린은평 만들기' 총력

"탄소중립 생활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그린은평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이는 민선7기 3주년을 맞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지역환경발전을 견인할 수색역세권 개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은평문화관광벨트 완성에 힘쓰면서 남은 임기도 현장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고민해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하는 그린은평' 본격 추진

구는 지난날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자원순환시민연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단체들과 함께 비대면 화상체널로 '탄소중립생활 전환 선언식'을 가졌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구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와 개인의 참여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은평 그린모아모아" 사업에 대해 "각 동네에 거점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 삼삼오오 가족 단위로 나온 주민들이 깨끗하게 닦은 우유팩, 페트병, 종이 등을 분리 배출하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기존의 재활용품 처리체계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자랑했다.

구는 생활폐기물 발생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자원순환 축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린뉴딜의 중요한 전략"이라며 "최근엔 블랙야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평 그린모아모아'에서 수거한 무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의류를 만드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구의 정책은 민간으로 확산돼 지역환경 개선이라는 상승효과가 나오고 있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기후환경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그린은평 대작전'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그린은평대작전' 1탄 '1일 1실천 함께 나누기'는 매주 4가지(쇼핑, 푸드, 생활 실천, 자원순환) 영역의 실천사항과 기후위기 영상 시청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매주 실천 결과를 센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록하고 공유했다. 세부 실천 제안으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계단 이용하기, 아이스크림 기증하기, 용기에 음식 담아오기, 음식 남기지 않기, 은평 그린모아모아 참여하기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그린 모아모아사업'이 지역거점중심의 자원순환실천 정책이라며 '그린은평대작전'은 좀 더 개인 중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 보려는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 수색역세권 개발과 불광천 문화관광벨트 조성

수색동 및 마포구 상암동 일대(22만㎡) 개발예정 부지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DMC앞대 롯데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칸벤션 등 업무·문화시설 조성, 2단계는 수색역세권 문화·관광·컨벤션·상업시설, 미디어 문화 특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수색·DMC역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최근 개최된 2021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삼표에너지 부지에 29층 규모의 삼표 본사 건립이 유치되고 다문화박물관 등 문화시설 조성이 확보됐다. 해당 부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참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약 9000㎡의 개발가능지로,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선이 지나는 DMC역에 접해있는 초역세권으로 수색로와 증산로의 연결점에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다. 이번 계획결정으로 서북권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은평구 초입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에는 DMC역 일대 서북권 광역 중심 상업시설 도입 뿐 아니라 수색~상암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발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상 보행 연결 및 DMC역 지하 연결 통로 설치 등 통합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 북한산과 불광천 조망이 가능한 옥상 전망대 설치 등이 개발계획에 반영됐다.

또 구는 옥상전망대~다문화박물관~불광천 방송문화거리~혁신파크~진관사~한문화특구로 이어지는 '은평 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위기 대응 프로젝트 '그린은평대작전'

매주 4가지 영역 실천사항 주민에 제안 '호응'

수색·DMC역 주변 삼표에너지 부지 복합개발

불광천 방송문화중합센터 조성 올해 개관 박차



먼저 불광천에는 현재 폐쇄된 은평구 자전거점합서비스 센터를 방송문화중합센터로 조성해 올해 개관할 계획이다. 불광천의 자연환경과 어울러지는 설계를 통해 1층에는 전시·홍보·다목적실과 2층엔 1인방송 스튜디오를 마련해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불광천에서 올라오면 천(川) 복개 지상과 음압역에 인접한 문화공연 광장, 북동동 서울혁신파크로 이어지게 된다. 혁신파크에는 총 면적 10만 9000여㎡의 부지 일부에서 서초구에서 이전하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로 구성된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진관동 북한산 한(韓)문화체험특구 안에는 천년고찰 진관사가 자리하고 은평한옥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한문화체험시설 등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돼 있다. 주변엔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이 지난 2008년 이전 개관했다. 기존 부지에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한글박물관이 들어선다. 진관동 한문화특구는 한국문화관을 중심으로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고 통일박물관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상암동의 경제·문화 인프라를 '은평 문화관광벨트' 완성을 통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형천기자 lrmhc@jeonmae.co.kr



김미경 은평구청장



민선7기 3주년을 맞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탄소중립생활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그린은평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① 수세미 모종 나눔 ② 은평그린모아모아 현장방문 ③ 불광천 방송문화중합센터 조감도 ④ 불광천경기대회. <은평구 제공>

은평 뉴스 브리핑

각종 인센티브...백신 예방 접종 박차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17종 제공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이달 중 구체적 자체 인센티브 방안을 따로 마련해 주민 백신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접종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부터 백신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타벅스를 받히고 경로당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한 상태다.

또한 백신접종자를 위한 배지와 열쇠고리 등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백신접종자는 자치회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시 우선권 부여, 은평지역 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 구립도서관·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 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로 함께 점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 상품 이벤트, 희망목공소 1회 무료체험권 지급, 찾아가는 장난감 '봉봉이' 서비스 이용요금 면제, 어르신 대면건강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접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접종기관,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임형천기자 lrmhc@jeonmae.co.kr

청소년 진로멘토링 '알쓸진짜' 진행

대학생 16명·청소년 36명 참여

서울 은평구는 청소년 진로멘토링 '알아두면 쓸모있는 진로멘토링 '짜깁'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알쓸진짜'는 청소년의희 제4회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제안사업으로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를 매칭해 단순한 학습 멘토링에서 벗어나 활동과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대학생 멘토를 통한 진로·진학 정보를 지원한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은평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11월까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13일엔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멘토 및 멘티를 보면 컴퓨터공학부, 사학과, 연극영화과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명과 청소년 멘티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이짓'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멘티를 추가 모집 중이다. 임형천기자 lrmhc@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여행의 시작 라인

송파구, 2022년 민·관 협치 우선순위 의제 선정

젤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시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19곳과 공동주택 257단지에서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구는 월 5000개의 아이스팩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활용 대상 아이스팩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다. 물이 담긴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종이, 비닐 포장을 별도 분리하면 된다.

구는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재활용 가능재료를 선별해 세척 및 소독한 뒤 최종 전남 완도와 신안으로 보낸다. 구와 결연을 맺은 이 지역들은 전국으로 배송될 수 산식품 포장에 필요한 아이스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온오프 송파협치 대공론장' 개최...주민참여형 열린정책공간으로 거듭나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온오프 송파협치 대공론장'을 개최하고 8개의 2022년 송파협치 의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관 협치사업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이다.

지난 15일 열린 '대공론장' 행사에는 송파구협치위원, 2021년 워킹그룹 참여자, 관심주민 등 현장패널 30명과 온라인 패널

50명으로 총 80명이 참여했다. 구정 대공론장에 설치된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과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구는 지난 2월 2022년도에 실행할 송파협치 의제 발굴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주제·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이다. 공약사항이기도 한 ▲일자리송파 ▲배우르신 ▲안전한송파 ▲꿈꾸는송파 ▲재미있는송파 5가지의 분야에서 114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부서검토 및 송파구협치 위원회에서 분류·융합과정을 거쳐 의제화했다.

이어서 5월 '송파협치 온라인 의제회의 소공론장'을 열어 발굴된 의제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서·협치위원·전문가·제안자 등이 함께 8개 의제를 선정, 이번 대공론장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①명품 도보관광코스 송파데굴길,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어 ②송파구 주민 모두가 안전한 범죄·재난 안전지대 만들기 ③어르신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④테마가 있는 송송파과길 만들기 ⑤어린

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⑥내가 송파협치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 ⑦27개 동 랜선소통 놀이대, 우리동네 수다방 ⑧호수데이 정화기의 순서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선정된 의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서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협치 네트워크를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열린정책공간으로 발전시켜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지난 15일 열린 대공론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 제공)

중랑구, 폭염종합대책 추진 '건강하고 시원하게'

오는 9월까지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팀 운영
폭염대비 그늘막 올해 5개소 추가설치...93개소 운영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9월까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폭염대책은 그늘막 설치 운영, 노숙인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독거어르신 및 영유아 보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늘막은 올해 5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93곳을 운영, 주민들이 횡단보도 및 피아니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무더위 쉼터도 128곳이 운영된다. 16개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102개소, 복지관 6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해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무더위 안전속수 4곳을 개설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야간 휴식 및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역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 노숙인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은 순찰을 벌여 시설 입소 거리상담과 응급구조를 진행하고, 노숙인 무더위 쉼터를 노숙인자랑시설 내 마련해 운영에 나날 계획이다.

독거어르신 보호활동도 꼼꼼하게 쟁진다.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보건소·병원 등과 신속 대응 및 구조서비스에 나선다. 폭염기간 중에는 도시락과 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취약 독거어르신 430가구에는 안전건강 솔루션 IoT 기기를 설치해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폭염대책을 꼼꼼히 준비해 무더운 여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중구, 열린민원창구 '노랑박스' 설치

누구나 무료로 민원서류 발급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관내 15개 동주민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노랑박스'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정부24 전용 PC를 설치해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유롭게 서류를 발급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주민 자유이용 창구'를 설치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용률도 증가했다.

구는 주민 자유이용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실 공간과 구분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민원창구, 일명 '노랑박스'를 설치 완료했다.

15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노랑박스는 별도의 안내없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PC를 이용해 정부24,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에 접속, 1300여종의 서류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객의 인터넷 검색과 문서 출력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 전수 점검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 한 달간 구정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전체 321개 단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붕구조 및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출입문 운용 현황(잠김, 개방 여부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대피공간 유무 ▲옥상 진출시 장애요인 등이다.

특히 구는 화재 등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나 자살 등에 대한 우려로 개방이 어려울 경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해 설치비용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추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는 송중동·송천동 일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내달 9일까지 지원을 받을 가게를 모집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 80곳으로 ▲도봉로20가길 및 도봉로 94~174 일대 송중동 특화지역(30곳) ▲송샘로67길 및 도봉로 95~175 일대 송천동 특화지역(30곳) ▲특화지역 외 송중동·송천동(20곳)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점포 내·외부 사진 등과 함께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는 방문·이메일·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포토뉴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철거 현장 안전점검 나서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6일 철거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착공을 앞둔 휘경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철거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살펴본 유 구청장은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구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 순서 준수 여부, 구조보강 설치 적정 여부, 가설물타라 설치 상태 확인 등 현장 안전 점검이 시행됐으며,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 공사장 주변 환경 안전까지 꼼꼼하게 점검이 이뤄졌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금천구, 현대·대우-DL건설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구청에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대우건설, DL건설㈜과 일자리창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성훈 구청장과 각 건설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속 공사 현장에 ▲금천구민 우선 채용 ▲구인·구직상호협력 ▲기타 연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민관이 협력기로 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이동편의시설·주민쉼터 개소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16일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신흥로 90) 옥상에서 이동편의시설 및 주민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공사를 이어왔다. 기존 공영주차장 건물에 엘리베이터(인승)를 신설, 옥상부까지 연결하고 신흥로-소월로를 잇는 지름길을 만든 것. 옥상에는 주민 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물과 소월길을 잇는 연결데크를 시공한 바 있다"며 "이번 엘리베이터 공사를 통해 교통약자가 소월길 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

-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헌혈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입력 봉사
- 사랑의 저금통 및 급여 끝전 모금 | 마스크 제작 나눔 | 재활용품 기부
-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에코폴로깅 | 에코백·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제빵 봉사



미션: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비전: 고객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능력 강화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직원들의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이어 데이터 역량 강화 경진대회와 '소양 교육 및 빅데이터 분석 툴 교육'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경진대회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정에 발맞춰 6~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데이터 개방 및 현황화 실적, GIS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STT(음성-텍스트 변환 시스템) 활용도, 빅데이터 분석 의뢰 및 결과 정책 반영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직원들의 점수를 환산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연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비대면으로 실시된 직원 소양교육은 김은옥 프로브미디어 대표가 출강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추진 현황과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과 변화 예측에 대해 강의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규정 이모저모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온택트 강연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자발적인 주민 간 화합으로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모색해 주고자 지난 8일~17일까지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온택트 강연을 개최했다.

지난 8일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의 '아파트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례 열린 강의는 매 회 40명 내외의 방청객이 랜선으로 참여했다.

10일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임주자 대표회의 중심의 아파트 공동체 활동: 에너지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실제 주민참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15일에는 타 지역 활동가가 연사로 나서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체 모임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 강연 주제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실현현장'으로 이상우 위스테이비즈니스학회장은 '상업 이사가 진행됐다'.

4차산업 미래기술 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30일까지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현실(VR/AR), 3D프린팅, 융복합 코딩을 포함한 4차 산업기술 미래교육 프로그램 6주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만들기' 메타버스 ▲'온라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가상현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3D프린팅 ▲'예술이 코딩과 만난다' 블록코딩으로 쉽게 배우는 융합 코딩 네 가지다.

교육 수강생은 양천구민 중 성인 대상으로 각각 선착순 10명을 모집 중이며, 양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포털에서 오는 30일까지 수강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6주 1만 5000원이다.

광진구, 자치구 최초 백신접종 어르신 '돌봄 백신' 호응

돌봄SOS 사업과 연계 백신접종 동행·일시제가 서비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돌봄백신'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마친 만 75세 이상 중위소득 130%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을 연계해 돌봄백신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백신사업은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 3일간 일시제가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 후 고열, 두통, 구토 등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신체적 변화와 응급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다.

이는 관리가 어려운 홀몸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어르신의 부작용을 미연

에 방지하고자 시행한 선제적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요양보호사 이 모씨(중곡동, 52세)는 "한 독거어르신은 간경화, 당뇨를 앓고 있어 걱정했는데 접종 후 문제가 없었다가 3일째 아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모셔드렸더니 '백신 접종 후 3일째 재가서비스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는 현재까지(6.16일 기준) 194명의 백신접종 어르신에게 백신접종 일시제

가 101건, 예방접종 동행 지원 136건을 수행,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식사지원 32건, 청소방역 등 주거편의 서비스 5건, 정보상담 194건 등 48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가족이 돌봐줄 수 없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백신 부작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서울 광진구 한 어르신(가운데)이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과 연계된 돌봄백신 케어를 받고 있다. (방규 제보)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동작관악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 등 아동기본권 보장 위해 동행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3개 유관기관과 아동친화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와 협약기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활동목표에 대해 공감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세부 협약사항으로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총괄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증진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서는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소방서는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은 기간만으로 따른 재협약으로 비대면 서면협약으로 진행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동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아동친화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기본권과 안전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동작구, 흑석·사당동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기정보 실시간 측정해 교통신호형태로 표시...주민 안전·건강에 도움 기대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상우)는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흑석동 사당동 2곳에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지점은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된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 마을버스정류장(흑석동 224-8)과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사당동 5동 까치산 마

을공원(사당동 산32-56)이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간이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지점의 데이터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4단계로 표시한다.

세부운영수치를 교통신호형태로 표시해 대기상태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대기정보의 실시간 표시로 마

스크 차용 등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장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분무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인 흑석동 공사장에 우선 대여하며, 대여기간은 한달 이내로 대기자가 없을 경우 대여기간 연장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02-820-9947)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중랑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예결특위 '심사 착수'

위원장 오하근 의원·부위원장 서상혁 의원

예산 1조 1397억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심사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최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하근 의원, 부위원장에 서상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 김미숙·박열환·신하균·최정보·최은주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 오는 22일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예결특위가 심의할 결산액 규모는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 1160억원, 특별회계 237억 원 등 모두 1조 1397억 원이다. 결산 승인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 오하근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됐는지 면밀히 살펴 이번 결산이 내년도



오하근 의원 서상혁 의원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신중하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영등포구, 메나골공원 추진협의체 Kick-off 회의

지난해 실행된 병무청 부지 메나골공원 조성안 추진에 본격 돌입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주민과 함께 메나골공원 합리적 공원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 일대는 1940년에 공원 시설로 결정됐으나 80여 년간 해군(60~93) 및 병무청(94~현재) 점유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되어 결정이 실행됐다. 공원 조성을 염원해 왔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의 이어 오는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힘썼다.

지난해 6월, 구는 공원 실행에 대비해 메나골공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병무청사 신축 등 공공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공원 등 주민 이용공간을 조성하는 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했다. 열람 과정에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원을 염원하고 기다려온 터라 공원을 최대한 넓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울러 2회에 걸쳐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공원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로써 당초 열람공고계획(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주민과 함께 공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이다. 이에 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메나골공원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병무청 일대 부지에 공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재열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추진협의체를 통해 모두가 환영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추진협의체의 첫걸음 격인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대문구, 신촌 일대 하수관 개량사업 시행

신촌로 구간 침수·도로 함몰 방지

내년 12월까지 새 관으로 확대 교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촌 일대 침수와 도로 함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사 구간은 천문화공원 앞에서 연세로5길을 따라 신촌로에 이르는 158m로, 율해 1차(78m)와 내내 2차(80m) 공사로 나눠 실시한다.

구는 현재 매설돼 있는 폭과 높이 2.5m

의 낮은 하수관(사각형거 하수박스) 2개를 각각 폭 2.7m, 높이 2.5m 새 관으로 확대 교체한다.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공사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공사 안내판도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공사를 심야에 진행하지만 주변으로 교통 정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차량 통행 시 우회하거나 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노원구 불암산힐링타운 소개.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구 불암산힐링타운. 불암산 엘리베이터 전망대, 유아숲체험장, 산림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노원정원지원센터, 철쭉동산, 나비정원, 불암산 생태학습관. 노원구 로고.

인천시, 화이트바이오산업 공모 연달아 선정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 위원 위촉

인천 중구는 최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구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금년 현재 38건 2억 원의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2억 원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주민들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사업 제안이 늘어날수록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이동학대 예방·학대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인천 서구와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으로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올해 4월부터 구에서 이관받아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 및 분리 조치 등 아동 안전을 위한 원스톱 처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아동학대 대응 정책발전 및 정보에 관한 사항 상호 공유 등이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미취학아동·초중고생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인천 용진군은 지난 4월부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알려 가정 내 학부모의 금연으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의 실제,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 예방,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등이며, PPT 강의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달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합실 및 선착장 9개소(장평, 연평, 백령, 대청, 자월 4개소, 영흥)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인 금연 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주민참여예산위 주민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인천 부평구는 지난 15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동별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위원회와 주민 제안 사업 심의,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는 주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주민 위원 심화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 전문 강사의 주민위원회 역할과 분과 운영,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회의 사례 강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전통체험 영양놀이터’ 특화사업 추진

인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 등록 기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렐루야와 함께하는 전통체험 영양놀이터’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할렐루야와 함께하는 전통체험 영양놀이터’ 사업은 조부모·부모·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영양교육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문화 조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단옷날(음력 5월 5일)을 맞아 떡을 만들어보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탈과 부채 꾸미기 등 교육 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영양교육과 더불어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선포기 105대 전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가 최근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흑서기 지원물품으로 선포기 105대를 전달했다.

백양근 동구지구협의회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회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인천대 부지에 구축 플라스틱 사회문제 해결·탄소중립 대응 등 친환경 처리시스템 예정

인천시는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에 연달아 선정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 기술 분야의 시설·장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0억 원, 인천시 15억 원, 민자 65억 원)이 투입돼 인천대학교 부지에 구축된다.

시는 다양한 환경(토양, 해양, 수계, 혐기환경)에서의 생분해도 평가, 분해 산물의 생태독성평가, 플라스틱 온실가스 저감 확인 위한 바이오매스 합량평가 등 시험평가 인프라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폐기·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바이오 폐기를 실증시설, 석

유계 생분해성 원료 개발 지원을 위한 파일럿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생분해 및 바이오매스 분야에 대해 센터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DIN CERTCO 인증)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DIN CERTCO 인증체계를 바탕으로 TÜV 라인란드,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인건형 인증제도’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산업부와 공동으로 민간인증체계를 구축해 보급·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리 표준개발 지원,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와 인력양성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원화 플랫폼 실증 연구’ 기획과제가 선정됐다.

시는 플라스틱 사회문제 해결,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비소각 비매립 방식의 대규모 친환경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파일럿 단계의 소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후속으로 탄소중립 도시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원화 플랫폼 실증 연구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연구와 연계한다.

또 생분해성 폐플라스틱 대량 수거 위한

시범단지(스타디움, 대형마트, 멀티컴플렉스, 캠퍼스, 주유소 등) 자원순환 모델 설계와 하루 1t 이상 처리규모의 바이오메틸(생분해성 페플라스틱+음식물) 처리시설 구축, 유통자원화(온실가스 무배출 에너지 저립 실증모델) 시설 구축을 통한 비소각, 비매립 탄소순환 경제모델을 설계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과 플라스틱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국가 탄소 중립실현에 기여하고, 환경특성성 인천의 비전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

거점 배수지 건설, 하루 59만톤 추가 생산 효과

인천시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9년까지 고지대 3곳에 거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점 배수지가 모두 완공되면 인천의 모든 정수장과 거점 배수지가 복수로 연결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모두 거점 배수지로 집결해 정수장 간 생산·공급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각 정수장의 생산용량이 최대화되며 하루 59만t(59만㎥)의 추가생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취수원부터 정수 생산시설, 배수지까지 상수 공급 이중화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1개 정수장 기능이 중지되더라도 그 외 모든 정수장이 연결된 거점 배수지를 통해 정상 공급할 수 있고 거점 배수지에서 지역 배수지들로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여 공급할 수 있는 순환 체계도 구축된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수질 문

제 우려를 야기했던 수계전환을 하지 않고도 취·정수장의 노후 설비를 수시로 정비하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배수지의 모든 정수장과 거점 배수지가 복수로 연결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모두 거점 배수지로 집결해 정수장 간 생산·공급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수계전환은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일의 사고가 생길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돼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 곁에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흐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수계전환 없이 수돗물 공급 추진 < >

박남춘 시장, 공존정수장 현장점검...수돗물 종합대책 온힘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공존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현장 방문, 수질 감시 및 수질 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자동계측기 설치현장, 천마산 배수지 증설공사 현장,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공존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준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설은 표준 정수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이다.

이어 시설이 준공·운영되면 공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서구, 중구·강화군 주민들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내 인프라에는 수질측정장치, 스마트미터링, 자동도레인 설비, 관세척 설비 등이 구축된다. 이르면 연말께 원격검침 시범 운영 등 각종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구축, 운영될 전망이다.

실제로 가정방문 등 수돗물 감사를 통한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현형 워터케어’ 사업 또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출범한 워터코디는 연 목표 3만9000건 대비 20%인 80277건(4월말 현재)의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서비스 만족도는 9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야말로 상수도의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의 변화를 이룰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영종국제도시 내 오성근린공원 조성 속도낸다

**조공휘 시의원·인천공항공사 사장 만나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제출 이행 약속받아**

절도작업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내 오성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공휘 의원(인천공항경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만나 오성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약속받았다.

지난 2003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활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오성근린공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체 석면 조사에 임해 주선 관계 공무원 모두에 검사드린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없이 14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돼 왔고 오는 8월 이번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으며, 시와 공항공사로부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을 아꼈다.

특히 이번 내담을 통해 공항공사가 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원 조성사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늦었지만 인천시민들과 의 약속을 지켜준 김경욱 사장을 비롯 공사 관계자, 인천시 공직자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과 자오스위(趙士玉) 칭다오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 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FEZ·중 칭다오구역, 바이오의약 등 교류 업무협약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산둥) 자유무역시험구 칭다오구역간에 바이오의약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과 자오스위(趙士玉) 칭다오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 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이 중국(산둥)자유무역시험구 칭다오구역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칭다오구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과 칭다오 기 업간 상호교류와 투자유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칭다오구역은 중국 산둥성 동남부에 위치한 칭다오시의 자유무역구로 지난 2019년 8월 설립됐다. 면적 52.43㎢에 항공 해운 물류, 무역, 금융, 첨단 제조업 등이 집중 사업구역이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양측이 바이오의약, 항만·항공물류, 첨단기술·제조업, 금융서

비스, 관광·문화산업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관송을 위한 물류센터, 복합운송서비스(RFS), 산업별 연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경원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업무협약은 칭다오자유무역구역과 산둥성 상무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산둥) 자유무역시험구 칭다오구역 개방협력 및 프 로젝트 촉진대회’를 계기로 칭다오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가 인천경제청에 체결을 요청했음에 따라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GS건설, 전국 첫 데이터 동행

인천시와 GS건설이 손잡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이터 동행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17일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GS건설은 시의 GIS 노후유와 GS 건설의 현장 관리 디지털 기술인 BIM 기술 협업을 통해, 시의 공간정보와 민간기업의 건물·인프라 정보를 공유,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운영을 위해 공동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시와 GS건설은 시의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오빔(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선구간 등 인천지역 공사 현장 9곳을 지정해 지역정보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지역의 건물과 관련 인프라는 수년간의 계획·설계·시공

지오빔 기반 스마트도시 건설 MOU 공간정보·건물 인프라 정보 공유 건설현장 9곳 선순환구조체계 구현

·운영 및 관리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공유된 정보를 통해 도시 환경 및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윤리 안제 어느 단계에서든 가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갖고 소통하며 건설현장 정보를 공유,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시와 GS건설은 이같은 데이터 동행을 통해 민관의 데이터가 스마트한 도시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도록 공유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계양구의회, 제229회 정례회 행감·조례안 심사 마무리

총 18건의 인건 처리

인천 계양구의회는 제229회 정례회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정지 결의안’이 의원 민정일처로 채택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16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처리했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 심사를 거친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현액 7281억 원, 수입액 7424억 원, 지출액 5384억 원, 잉여금 1490억 원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구의회는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장 12건, 권고 114건 등 총 126건을 지적하고 구청에 반영토록 했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아파트 조경석 석면 45곳 조사

인천 연수구가 아파트 조경석 석면 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 인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체 석면 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6000여만 원을 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각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경기 광주시 '행복밥상' 다시 도마위에

1기분 자동차세 39억9400만원 부과

충남 홍성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5108건, 39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 까지 납부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 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치 및 이륜차 소유자로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산반기본으로 연세액의 2분의1 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이하면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홍성/ 최승희기자 sgchoi@jeonmae.co.kr

6개 부문 모범시민상 후보자 추천 내달 9일까지

경기 성남시는 내달 9일까지 6개 부문의 모범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지역안정, 여성복지, 사회봉사, 효행·선행, 보건·환경 등 부문별 공모자를 찾는다.

'제48주년 삼일절의 날(10.8)'을 앞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쓴 시민을 발굴해 표창하려는 사정절차다.

부문별 후보자는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구청장, 해당 업무 관련 담당 실·국·소·단·원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하려면 공적 조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시민 공개 감중'을 한 뒤 지역 여론, 품성, 공적 내용 등을 현지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 1명씩 모두 6명을 선발한다.

이일영기자 leeyi@jeonmae.co.kr

시청 내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경기 화성시가 시청 내 주차장에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와 차량 설치 및 장애인 주차면 수 확충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청 내 장애인 주차공간 개선을 위해 청사 본관 출입구 옆쪽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장을 도색하고 장애인 주차장 주변에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또 주차장에서 시청 본관까지 이동통로를 만들고 그 위로 차량을 설치, 장애인들이 사정 방문 시 불편함과 어려움을 없도록 조치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민원업무에 의해 시청을 방문할 경우 비어 등 기능상화에 노출했으나 이번 차량 설치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홍성/ 최승희기자 choi-sp@jeonmae.co.kr

오늘 학교도서관 재조명 온라인 정책 포럼

경기교육청이 18일 '학교도서관, 미래교육의 화로를 켜다'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과 학생주도 독서 생활화를 목표 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자 도교육청에서 마련했다.

포럼은 독서교육 전문가 등 토론회와 도내 초·중·고 교감 100여 명이 참여하며 경기교육청 도서관정책과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책 읽는 학교와 도서관 경영 전략, 학교 공간 구축을 활용한 독서 환경 조성,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활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원주/ 안종필기자 iyahn@jeonmae.co.kr

신시대 취약지역 33곳 지정·해제

강원 삼척지역 신시대 취약지역 33곳이 지정 및 해제될 전망이다.

신시대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방협회 강원지부에 용역을 의뢰해 시 관내 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시는 가곡면 탄곡리 산2호반지를 비롯해 8곳을 신시대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 57-10 등 25곳을 해제 예정지로 선정했다.

시는 내달 7일까지 8곳을 신시대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공고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신시대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신시대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매우 높다"

집행부 "코로나19 진정 안되면 행사 취소 등 잘 판단할 것"

경기 광주시 행복밥상 문화축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하는 행복밥상 문화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명영 의원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이 완화 되더라도 1단계면 500명 이상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제가 개최될 오는 10월에 거리

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불용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행사 추진시 집행부는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현철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500명 이상 행사를 추진 할때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내용은 행사를 자제하라는 뜻"이라며 "1000명이 모여 고기를 삼아 먹는 행사는 이사회에 해야 될 일이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번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행사성, 선심성, 남비성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부결된 행사를 또 다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행복밥상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위로 받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백신 접종률이 오는 9월 말이면 70%정도 예상되고 10월 중순이면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담아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사시점에 코로나19가 진정 이 안되면 정부의 방침대로 행사 취소 등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밥상 문화축제와 관련 7400만 원의 예산은 예결위 정회를 거쳐 찬성 6, 반대 3으로 원안가결됐다.

광주/ 도윤식기자 ngoa21@jeonmae.co.kr



강원 철원군은 16일 연천군청에서 광역 정책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촬영: 이재후>

철원군-연천군, 상호협력 상생발전 업무협약... "광역 정책사업 공동 발굴"

통일시대 거점도시로 동반성장 준비

강원 철원군은 경기 연천군과 함께 통일시대 거점도시로 동반 성장을 준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철원군은 전남 연천군청에서 광역 정책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는 상생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역은 통일시대 거점도시로 동반 성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처리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특히 철원군과 연천군은 유네스코 지

정 받은 한탄강세계 지질공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남북 연결 주요 간선교통망인 경원선과 국도 3호선을 함께 이용하는 동일 생활권으로 공동의 상생발전 현안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자체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실무추진

협의체를 운영, 접경지역의 공동성장 정책 개발과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연천군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영육을 같이한 동일 생활권을 가진 가장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초로 다양한 광역사업 및 협업 사업을 발굴 추진해 양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보령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28억 공모

8월 16일까지 접수... 생활 밀착형 16억·시 정책사업 12억

충남 보령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28억 원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에 읍면동별 각 1억 원씩 16억 원, 시 정책사업에 12억 원 등 모두 28억 원을 공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읍면동 생활 밀착형 사업은 생활 주변 불편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며

시 정책사업으로는 시민 편의 향상과 시 전반의 과급효과가 높은 사업,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증가·청년 지원 사업, 시민안전·환경·문화·관광 관련 사업 등이다.

단 행사성 사업, 특정 단체 지원, 경로당 운영 관련, 토지보상 또는 1차년도에 추진이 곤란한 계속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 홈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제 신청'이나 읍면동 생활 밀착형 사업은 해당 읍면동 방문 또는 팩스로, 시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예산팀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830-3100), 전자우편(shine2287@korea.kr)으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감사실 예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읍면동 지역회의 및 시 위원회에서 각각 1차 심의와 시(민관)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각 사업의 해당 부서로 통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의 제안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의 통해 예산에 반영해 시정발전의 큰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예산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 이경영기자 leegy@jeonmae.co.kr

정선 북평면 내전역, 문화예술 공간 '인기몰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 공연

강원 정선 북평면에 위치한 내전역이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선 북평면 내전역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화제다.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CF, 영화 등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며 정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내전역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을 달래며 힐링할 수 있는 추억과 야생로그 감성을 데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는 공연은 색소폰, 통타, 플루트, 이리랑, 락밴드 등 감상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겁게 힐링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선선의 간이역인 내전역은 지난 1989년 보통역으로 운영을



강원 정선 북평면 내전역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령: 이재후>

시작해 1989년부터는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가치의 운영과 함께 레트로 감성을 살린 '내전캐니발' 카페를 만들어 콘도레 카페를 비롯한 데크카페, 콘도레떡 및 파이, 크림카피 등 정선 특산품을 활용한 카페 메뉴를 선보여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선군 북평면장은 "북평면 내전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해 정선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고 힐링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군포시,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지원사업 추진

지역 의료·치료기관 협업

경기 군포시가 지역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에따라 시청사에서 연세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관내 병원, 상담·치료기관 등 11곳과 군포시 지역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인권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기관들은 고위기청소년 사례대상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검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위기청소년 발굴과 위기개입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함께 제공해서 위기청소년이 원만한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혜희 시장은 "위기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정신건강지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지원·사례관리 등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한 청소년인권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도·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박재만(사진) 경기도의회 예결위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17일부터 22일까지 도 및 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위원들은 지난달 28일 도 및 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간)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36조 6881억원, 세출결산액 33조 2800억원, 세계잉여금 3조 4010억원이며 도교육청의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8조 3866억원, 세출결산액 17조 3247억원, 세계잉여금은 1조 709억원이다.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 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세수주체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결손처인(간)에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에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도 및 도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서천군, 장항·종천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충남 서천군이 종천농공단지과 장항원수 농공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숲은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잎의 모양, 숲의 구조적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부터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흡착, 흡수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1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투입, 장항원수농공단지 1.15ha

면적에 전나무, 개수나무 등 총 2만1946주를 식재하고 종천농공단지 1.0ha 면적에 관박나무, 매죽나무 등 총 8897주를 식재했다.

김영관 산림과장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으로 농·공업지역 주변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열섬현상 완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 도시 숲 조성을 확대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파주시, 광역급행버스 M7154번 개통...교하~광화문 운행

경기 파주시가 17일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7154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19일부터 운행하는 M7154번은 오전 5시30분 교하 정차비를 8시간 정류소를 출발해 23시50분에 마차를 운행한다.

M7154번 버스는 교하 정차비를8시간 정류소, 숲속감나무7단지, 산내마을9단지, 운정고, 한울마을2단지, 새암공원을 거쳐 제2자유로를 경유해 연대앞, 이대후문, 사대문경

차서, 송례문, 시청앞, 광화문까지 이어진다. 이번 M7154번 개통으로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관련 시는 올해 안에 전기버스 12대를 교하 투입해 광역교통 이용을 한층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파주/ 임철영기자 imci@jeonmae.co.kr

황성군,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강원 황성군은 지적공부 측량기준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2018년부터 지적기준점 4.431점의 좌표를 재관측했으며 면적 및 위치기준을 통해 지적·임야도 19만 4000여

필지를 변환했다. 또한 경제정보시스템부 산하지역 내 필지 8천여 필지도 올 연말까지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상삼 군수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 안종필기자 iyahn@jeonmae.co.kr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차 산업 활성화 닦아 올렸다

무공해 수소전지차 시승 행사 진행

경남 진주시는 오는 21일 시청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수소전지차 시승 행사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시 관공동에 건립된 서부경남 1호 수소충전소 준공을 기념하고 무공해 수소전지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진주시와 현대자동차 진주시지점이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했다.

행사날인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주차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를 전시하고 시민들이 수소차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차량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지속가능한 엑스포 실현·기업 가치투자 유도...200여 업체 유치 목표

구매자-사업자 B2B 상담회 등 실시·해외기업도 해외로드쇼 등 행사 계획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대한민국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의 본격 추진을 알리며 기업 유치에 나선다.

17일 조직위에 따르면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0여 개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

터는 1000여 개의 관련 기업체 목록을 확보해 참여 의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특히 조직위는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기간유형별 선택권 부여, 부스 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구매자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엑스포 기간 내 B2B 구매자 상담회, 비즈니스포럼, 수출상담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해외기업과 구매자 유치를 위해 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협조를 구해 해외로드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뿐 아니라 차의 생산 및 판매,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엑스포장 구현, 차로 연결된

전 세계 공존문화 조성, 차 네트워크 구성,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삼는다.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엑스포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엑스포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뒀 운영될 예정이다.

신정열 사무처장은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목적은 대한민국 차 산업의 활성화를 일으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있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사회적

이익과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이런 노력에 많은 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후원 유치와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동/ 임흥실기자 imhs@jeonmae.co.kr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본격화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공원 부지에 들어서는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웅천국민체육센터'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웅천 이순신공원 부지 일부에 연면적 3350㎡,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 수영장(25m 5레인), 다목적체육관, 외부 쉼터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시설로 조성될 예정으로 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66928@jeonmae.co.kr

2022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경남 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계획의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43개 시군에서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약 22:1 수준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향후 올 연말까지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확정된 후 내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천/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도내 최초 사대 농촌유도피아 조성

전북 남원시는 지난 17일 도내 최초로 LH전북지역본부와 '남원시 작은 학교 살리기 실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인구감소 등 쇠퇴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나섰다.

농촌 유도피아 사업은 사대면 소재 사대초등학교와 용복중학교 등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9월 사대 농촌유도피아 추진위원회를 구성·관이 협력해 학부모에게는 주택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학생에게는 청정 자연환경과 맞춤형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사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 복지 활동관, 한복 문화누리터 등 개선된 생활SOC와 사대 일반산단단지 일지리터에 이번 LH와의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대초등학교와 용복중학교 전학 학생의 가족에게 12호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북동~거문도 항로 쾌속선 운항 개시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북동신항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을 운항하는 항로에 쾌속선 '퍼스트퀵호'가 오는 19일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취임호는 소속 '퍼스트퀵호'는 170t급으로 여객정원 200명, 항해속력 25노트의 쾌속 여객선이다. 북동과 거문도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

이번에 투입된 '퍼스트퀵호'가 북동에서 초도를 거쳐 거문도를 도착하는데 1시간 20분 이내로 가능함에 따라 관광객 및 도서 주민의 이용 편의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흥/ 구자현기자 kjh@jeonmae.co.kr

청정전남 미술 화단 정비사업 실시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상마을 주민들이 마을 꽃 화단 길 조성 사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문척면 구상마을 주민 20여 명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화단 앞에서 준비한 화단에 계절 꽃을 식재했다.

주민들은 식재를 마친 화단을 마을 입구 도로변, 공터 등에 옮겨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꽃을 보는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윽락 문척면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활동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 활성화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마을 주민들은 계절별로 꽃을 교체, 꾸준한 유지관리를 통해 마을 화단을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 읍면 마을도 농번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통해 마을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부연했다.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전남 장흥군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군 역대 최대 사업비 428억 원을 확보했다.

장흥군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역대 최대 428억 확보

전남 장흥군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추진 대상지 주민 면담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및 부서 간 협의 체계를 구축, 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된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군의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종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고 2022년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며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중순 군수는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이라며 "앞으로 공모사업 취지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농촌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수행 예정이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며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중순 군수는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이라며 "앞으로 공모사업 취지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농촌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

허석 시장·허유인 의장 한 목소리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은 1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시장은 "여수·순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73년 숙원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피해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출발점에 서게 됐으며 여수 10·19사건이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는데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수 10·19 시민연합회와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남동부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순 10·19 역사 바로 알기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 여순 10·19사건과 관련한 유적지 일간실과 교육용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여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 여수·순천 일간실 및 행사 및 제70주년 위령제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행동 참여, 여수·순천 재실 재관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여수시의회 정창근 의장은 지난 3월말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민 전 원내대표와 서영고 행안위원장, 김희재·김삼남 의원 등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윽락 허유인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이끄는 명실상부한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66928@jeonmae.co.kr

로 여순 10·19 역사 바로 알기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 여순 10·19사건과 관련한 유적지 일간실과 교육용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여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 여수·순천 일간실 및 행사 및 제70주년 위령제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행동 참여, 여수·순천 재실 재관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여수시의회 정창근 의장은 지난 3월말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민 전 원내대표와 서영고 행안위원장, 김희재·김삼남 의원 등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순천/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GS칼텍스-여수시, 수소경제 활성화·탄소중립 힘 쏟는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협약 체결 15MW 규모 발전소 2023년 완공

GS칼텍스가 한국동서발전, 전남 여수시와 손잡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나서며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여수시는 GS칼텍스, 한국동서발전과 17일 시청에서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GS칼텍스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1천억 원을 투자해 시 소재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내 유류부지에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5M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약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산소와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 부산물로는 순수한 물만 생산된다.

발전소는 LNG를 원료로 하는 다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달리 부생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인근에 있는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부생수소를 공급받게 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CCU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CCU 기술 상용화를 통해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세록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동서발전, 여수시와의 투자협약으로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수소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봉 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이끄는 명실상부한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66928@jeonmae.co.kr

장흥남 남해 군수, 국비확보·현안사업 추진 광폭행보

정부세종청사 잇따라 방문

장흥군 장흥 남해군수는 국비 확보를 통한 남해군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16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접 설

장 군수는 이번 정부세종청사 방문을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국도3호선 상동-장선 구간 4차로 확장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 출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장 군수는 올해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접 설

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국도 3호선 상동-장선 구간 4차로 확장 등 대형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 출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장 군수는 "올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방문을 하고 있다"며 "청정 남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남해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의령군, 문화가 있는 날 '신촌블루스 골목길' 주목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서 신촌블루스 임인호씨 참석

경남 의령군은 이날 1일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인 '신촌블루스 골목길'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촌블루스의 리더 임인호와 함께 '나그네의 옛 이야기' 곡을 시작으로 '그대없는 거리', '거리에서'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TV드라마로 전 연령층을 겨냥해 사운드클라우드 '음달나라 1988'의 배경인 생문동 골목의 감동과 함께

'골목길'을 마지막 곡으로 장식하며 30년간 그 시절의 추억에 다시 한번 빠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료는 전석 무료이며 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오는 21일부터 비대면으로 예매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다시장은 의령군민문화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입장객 마스크 착용하기 및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령/ 최판규기자 cpag@jeonmae.co.kr

문경시, 지역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 새단장

오미자 등 약40여 품목 할인행사

경북 문경시는 17일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에서 교육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농특산물 공식쇼핑몰인 '문경사랑 새재단재' 라뉴얼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문경사랑 새재단재에서는 오미자 제품을 비롯해 견과류, 전통식품인 일장·간장, 한과, 버섯류, 발효, 약초 등 200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네이비벤드와 연계해 시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다.

시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비대면(인터넷) 소비성향에 맞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트렌드에 맞는 다양

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특산물 쇼핑몰 '문경사랑 새재단재'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디자인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순화 했으며 소비자 혜택을 위한 쿠폰 이벤트, 생산농가 소개 코너, 임신부 꾸미기 코너, 오미마켓 코너와 라이브 방송 기능 등을 추가했다.

또한 시는 문경사랑 새재단재 라뉴얼을 기념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핑몰인 문경사랑 직판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에서 오미자 제품 등 40여 품목에 대해 10%~20%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청도사랑상품권 할인판매액 100억원 돌파

1인 1청도사랑카드 갖기 운동 등 효과

경북 청도군은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액이 종이형, 카드형 포함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할인판매액인 8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지난 11월부터 할인판매액이 100만 원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도사랑상품권 구입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하며 단 14세 이상이면 모바일 앱을 통한 카드·모바일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다.

청도/ 변경희기자 byeon-ki@jeonmae.co.kr

청도나 올리는 현재까지 63억 원에 이르는 등 가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도사랑카드의 월 할인대상액은 100만 원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도사랑상품권 구입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하며 단 14세 이상이면 모바일 앱을 통한 카드·모바일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다.

청도/ 변경희기자 byeon-ki@jeonmae.co.kr

강진군, 농식품부 공모 선정...5년간 최대 300억 지원

전남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예비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지정은 지역구 국회의원 김삼남 의원과 도 농림축산식품부, 군이 공모 선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룬 쾌거로 평가받는다.

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생활SOC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남부서를 지정하고 올해는 주민과 행정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강진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강진군만이 가진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허성무 창원시장, 진해변전소 주민숙원 해결 촉구

옥내화사업 2023년 준공 계획

경남 창원시는 17일 허성무 시장이 진해변전소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변전소 옥내화사업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한전에 진해변전소 옥내화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변전소 옥내화사업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옥외 철거물 변전소를 철거하고 디지털 변전설비를 건물안으로 넣어 도심형 옥내 변전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진해변전소 옥내화에 드는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며 올해 9월 착공해

2023년 준공 계획이다.

시는 진해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해변전소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변전소 옥내화사업들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5일 한전과 자문동 주민대표가 참여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허성무 시장은 "진해구 지역 숙원사업인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eonmae.co.kr

청양군, 공모 유치 3천억 '홀짝'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경기 군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8대이며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독립공공차, 장애인 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대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배스 수소연료 전지차로 대당 350만 원이 지급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시에 등록돼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차량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손 꼽아 농촌협약 등 대규모 추진동력 확보

김동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확보한 공모사업 예산이 3000억 원을 돌파했다.

김 군수는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년 결산을 위한 비대면 유튜브 브리핑에서 "민선 7기 들어 군이 확보한 전체 예산이 1조5800억 원에 이른다"며 "그 가운데 공모사업 119건 3002억3800만 원, 국비 사업 236건 4529억 원, 민자사업 유치 21건 8184억 원"이라고 밝혔다.

군은 농촌협약 434억 원,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280억, 고령자복지주택 270억 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0억 원, 충남 기후환경연구소 198억 원, 사회적 공

동체 특화단지 190억 원, 가족문화센터 190억 원, 장산 다목적복지관 151억 원 등 굵직한 사업을 한 차례 실행도 없이 100% 유치했다.

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생활력력러스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도시생태 축복사업 등도 2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다.

김 군수는 이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들 첫 손에 꼽았다.

또 "민선 7기 충남도가 신규 추진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기후환경연구소 2개 공공기관을 모두 유치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청양/ 이근영기자 leegy@jeonmae.co.kr

4개 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원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7일 차행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이번 방원속 위원회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음식물 개량사업, 소화공정 찌꺼기 감량화사업 추진 시 찌꺼기 감량을 분석 및 소화조 이용 효율 분석을 통해 슬러지 처리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에 열병합발전시설 가동 등 에너지 수급을 절감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하수처리장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해성 위원은 기후변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양성평등의 가치를 강화할 당부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thn@jeonmae.co.kr



경기 평택시는 법인 백승의료재단 등 6곳과 개인 8명을 '2021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로 선정해 17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2021년 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 수여

경기 평택시는 법인 백승의료재단 등 6곳과 개인 8명을 '2021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로 선정해 17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상 납부한 자로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가한 내 체납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1년간 평택시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디문화가족 2박 3일 팸투어 진행

강원 원주시 청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관내 디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문화도시 원주 관광 캠페인 '삼' (이하 '팸투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전국 그래픽 작가를 대상으로 한 '2020 문화도시 원주 가을 팸투어 가을방학'에 이은 두 번째 팸투어다. 일정은 오후 1시 Before I Die, 레일바이크 및 성황림 숲 체험, 나를 닮은 도마 만들기 등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팸투어 여정은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www.원주롭다.kr)'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공유될 예정이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평생교육 아카데미 특강 18·24일에 실시

강원 철원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α 적용)에 따른 '2021년 철원 평생교육 아카데미' 강의를 대면 100명 사전 접수에서 최대 250명까지 군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는 물론 당일 현장접수도 받는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철원관광정보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1차 강연은 1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환경과 다양성 '두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2차 강연은 오는 24일 물리학 박사 김상욱의 '뉴턴의 아틀라에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동해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빛났다

천곡동 대학로 일원에 명품거리 조성 마무리

강원 동해시가 천곡동 대학로 일원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명품거리-동해로 물들다' 사업을 마무리했다.

17일 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시는 공모로 선정된 작가들과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천곡동 대학로 일원에 진행 중인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심권역에 새로운 색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시는 향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최종 사업 완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 문제 및 작품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계획이다.

이들중 문화체육관광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면서 시의 중심 시가지인 천곡동 대학로 일원을 명품거리로 거듭나게 하고 주변의 문화관광 시설인 천곡전원동굴, 한섬, 감추사, 웰빙페스티벌 등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참여자들에게는 소중한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관광도시 시의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 이교원기자 leekh@jeonmae.co.kr

정선군, 백신 접종자 '안심여행 이벤트' 눈길

레일바이크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확인서 보이면 이리랑 상품권 지급

강원 정선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잠재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선 안심여행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인 정선레일바이크, 박스랜드, 화암동굴, 화암 카트 체험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표소에서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를 모바일 어플이나 종이로 제시하면 지역 사탕 화폐인 이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광지별 페이백 규모는 레일바이크 이용 시 5000원, 화암동굴 2000원, 화암 카트 체험장 및 박스랜드 4000원의 이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관광객 9500명을 선착순으로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민간 군 관광사업체협회도 최근 웰니스 인문학 여행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얼리조트, 정선 스카이



강원 정선군이 진행하는 '정선 안심여행 페이백 이벤트' 홍보 포스터. <정선군 제공>

워크, 삼아트마인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자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

인석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잠재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백신 접종률 향상을 통한 안심 여행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서산시, 교통편의 증진위해 정기적 도로보수

도시계획도로 등 20개소

충남 서산시가 정기적인 도로보수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나섰다.

시는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위암국도에 대해 상반기 아스콘포설공사 등 도로보수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노선으로 총 12.34km를 정비했다.

지난 4월부터 부서별 감수리, 자곡면 무장리 등 농어촌도로 10개소와 읍내석남동 일대 도시계획도로 7개소, 석림 및 잠룡삼

거리 일대 위암국도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특히 상습 정체구간인 석지 및 예천사거리의 좌회전 포켓차로에 대해 중앙분리대(화단)를 설치하고 진입 도로를 40~75m까지 연장해 교통 소통을 크게 개선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하반기 보수 대상지를 발굴 선정하고 무더위가 잦아드는 9월 본격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함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강원 고성군,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추진

1475만원 투입 95마리 추가 계획

강원 고성군은 도심지나 주택가에 늘어 나고 있는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동물병원 3곳이 참여해 48마리를 수술, 72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45마리 분 725만 원을 확보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이 크게 늘

어지고 있어 올 연말까지 1475만 원을 들여 95마리를 추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성화 수술시 구강질환, 외상, 구진드기 확인 및 처치, 구충제 투여, 화상·과열·수술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인공통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주민불편 예방에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포천시 공고 제2021-13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설치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명칭
-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2년 12월 31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 연장 : 0.2km 회전교차로 1식	포천시(포천시청)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 (신승로)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도로사업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031-8030-3865) · 포천시 도로과 (031-538-2373)	2021. 06. 16 ~ 2021. 06. 30(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06. 16 ~ 2021. 06. 30(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2021. 6. 18
포 천 시 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107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인	처리방법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인	처리방법
홍민석	64.09.20	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 8길8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379, 412호 (만석아파트)	2021. 5. 18 10시42분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59번길119	신매정지	회장후통안

2. 공고기간
- 2021. 6. 18 ~ 2021. 7. 18

3. 처리방법
- 회장 후 통안(금마춤)

4. 봉안기간
- 5년(2021. 6. 3 ~ 2026. 6. 2)

5. 봉안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 032) 456-2346(봉안번호 : 5-B1-06407)

6. 연락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복지정책과 ☎ 032) 760-7521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스텔레톤 금메달 봅슬레이 은메달

초판 한정 시인본 저자 인쇄 전액 기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적이라는 말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가 이룬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체투지'였다!

꿈이 현실이 되는 도전 **화제의 신간**

우린 팀원 Team one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만들어낸 봅슬레이 스텔레톤 이용 총감독의 리더십

이용 시를 117,000원

우린 팀원

Team one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만들어낸 봅슬레이 스텔레톤 이용 총감독의 리더십

www.muhan-book.co.kr | 홍도 | muhanbook@naver.com | 전화02322-6144 | 팩스 02-325-6143

생 활 안 내 정 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 국 매 일 신 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031) 755-5653

오늘의 날씨 전국 히고 비 ... 오후에 차차 그쳐

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다. 비는 오후 들어 차차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여졌다. 새벽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보령머드축제 온앤오프' 내달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충남 보령시 제24회 보령머드축제가 '온앤오프(ON&OFF)'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달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해수욕장 및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시는 17일 보령머드박물관에서 김동일 시장(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장), 조태현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이사회회의를 열어 올해 머드축제 최종 개최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상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온라인 보령머드축제를 올해는 온앤오프로 병행해 한층 더 발전시킨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온라인을 넘어 머드 축제뿐만 아니라 보령 관광 체험을 집어넣어 즐길 수 있도록 체험키트와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 및 먹거리를 공유하는 생생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방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머드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콘텐츠는 양방향 스트리밍시스템을 활용해 머드체험과 공연을 함께 즐기는 '짐머드체험&머드라이브 인 더 월드', 보령의 우수한 농수산물로 만드는 요리 콘텐츠 '테이스트 오브 보령', 보령의 농·특산물·해산물·속박권·식당 음식구매권 등 다양한 상품 경매이벤트인 '머드옥션 경매의 달인'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보령/ 이경영기자 leegy@jeonmae.co.kr

세종시, 민원실 폭언·폭행 등 대비 모의훈련

세종시가 전산 시정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가정해 실제 상황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했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경찰 출동으로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 숙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민순 시 민원과정장은 "이번 훈련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직원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서산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당부

충남 서산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 및 개인위생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여름철 대표 식중독인 장염 비브리오에 비브리오균에 의해 6~10월 주로 나타나는 해수의 온도가 15°C 이상일 때 증식하고 수온이 높을수록 빠르게 증식하는 습성이 있다. 이 균은 생선, 조개, 아메바의 아가미, 내장 등에 기생하며 오염된 아메바, 조밥, 생선조 등 날 것 섭취, 생선 단 파우에 오염된 바닷물 접촉 시 증상을 일으킨다. 감염 시 대부분 12~24시간 이내로 복통, 설사, 구토, 미열 등이 동반되며,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비브리오균은 수돗물로 2~3회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수산물 섭취 시 횡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 사용하고 요리 전후 세척 및 열탕 소독해야 하며, 아메바는 5°C 이하 저온보관 및 85°C 이상 가열해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오염된 바닷물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 김지별 정신보건위생과장은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식중독 예방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의 진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예산군, 예당저수지서 가시박 퇴치 작업

충남 예산군은 17일 광서면 동산리 예당저수지 낚시 대회장에서 대표적인 외래 식물인 가시박 퇴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농어촌공사, 예당내수면 사업,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3톤 가량의 가시박을 제거했다. 가시박은 지난 2009년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성 1등급을 받은 유해식물로 주로 하천변에 서식하면서 분포 생육하는 나무를 고사시킨다. 예당호 등 하천변을 중심으로 발견된 가시박은 최근 마을언길, 농경지 등 특정 장소에 구매하지 않고 강한 번식력을 보여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가시박 분포 대상지 전역을 조사 후 연 2회 이상 집중 기간을 두고 제거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예산/ 이훈택기자 chillee@jeonmae.co.kr

시흥 공공스포츠클럽 탁구대 납품 '구린내'

초대 사무국장 부인 운영 업체서 "유명브랜드"라며 저가 납품 차액 전 사무국장 편법급여 수령 말뭉

경기 시흥시 공공스포츠 클럽의 납품비리와 편법급여 수령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초대 사무국장의 부인이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용품 업체가 탁구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내용과 다른 저가의 모델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S스포츠는 시 체육진흥과에 탁구대 12개를 1개당 125만 원씩 1500만 원으로 탁구대 유명브랜드인 C제품의 프로 9를 납품한다며 실질적으로 저가인 슈퍼9000을 납품견적서로 제출하고 대당 40여만 원의 낮은 저가로 납품해 400만

~500만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S스포츠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탁구대 신규입 요청이 들어와 이같이 견적서를 받고 승인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브랜드의 저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한 견적서 내용과 다른 저렴한 모델을 납품해 차액을 냈다는 의혹이 이뤄짐에 따라 이 금액은 환불 조치하고 법적인 문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 팀장은 "다른 탁구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전 사무국장의 편법급여 수령의 문제를 제기, 법적 디딤돌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의 보조금

에 대한 사무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전 사무국장 A씨는 출근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근 카드를 찍게 했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는 인건비를 줄인다고 본인이 출근하고 출근하자마자 다른 탁구장으로 가서 레슨을 하면서 주말 수당을 받는 등 편법급여와 불명확한 업무카드를 사용해 문제 제기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편법급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도 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번주 중에 자체 회계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편법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공공스포츠 클럽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문제가 된 슈퍼9000 저가의 탁구대.

한편 편법급여 수령에 대해 전 사무국장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도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패스를 했지만 출퇴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차장 출신 자료를 받아 해명했다"고 말했다.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카메라 고발



표지판 없이 수도관 교체공사... 민원 '뒤틀린' 경기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장2동 중앙시장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도 무시해 논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관로가 너무 오래돼 지역별로 교체공사가 많이 민원이 소홀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김돈곤 청양군수, 인구증가·일자리 창출 '울인'

일반산단·스마트타운 조성 집중

김돈곤 청양군수는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청양지역 최대 현안이라며 진여 일기 동안 일반산단 및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청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비대면 유튜브 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산단 조성,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청소년·청년층 지원,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면 현안으로 꼽고 있다"며 "진여 일기를 포함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청소년·청년층 정책에 대해 김 군수는 "청소년과 청년층 지원을 위해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며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이경영기자 leegy@jeonmae.co.kr

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서울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 투자 유치진흥금 마련 등 성공적 산업단지 조성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인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한 단계씩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면서 "분야별, 계층별 성장기회를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비평면 산업단지외 남양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인구증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평면에 들어서는 청남소방복합시설 또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노인복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청소년·청년층 정책에 대해 김 군수는 "청소년과 청년층 지원을 위해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며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임산부 전용 119구급차 배치

대형 4대·일반형 12대 등 총 16대 응급분진세트·심장중격기 등 탑재

충남도가 도내 전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119구급차를 배치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3대에 1대를 추가한 대형 구급차는 보령과 아산, 서산, 논산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군은 일반형 구급차를 배치했다. 이들 구급차는 차산이탈경보와 인덕 발검진 보조장치를 추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응급분진세트 및 고급형 심장중격기 31종 71점의 장비를 탑재했다. 또 임산부 충격 완화를 위한 전용덮개와 산생아 안전 확보를 위한 추락 방지 시트를 설치했으며, 임산부와 영아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의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돼 90여 구급차 배치는 임산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출산전환차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명선 도의회 의장은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분진세트 및 고급형 심장중격기 31종 71점의 장비를 탑재했다. 또 임산부 충격 완화를 위한 전용덮개와 산생아 안전 확보를 위한 추락 방지 시트를 설치했으며, 임산부와 영아가 편안하게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금산군, 과수화상병 선제 대응...간이진단 진행

본격 농작업 시기 맞춰 추진

충남 금산군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최근 관내 43ha, 107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정밀 여부를 실시했다. 이번 예찰은 사과, 자두, 복숭아, 도장지 제거 등 본격적인 농작업 시기를 맞아 추진됐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예찰 기간 동안 조를 나눠 관내 과수원을 찾아 육안으로 살피고 의심주에 대한 간이 진단 등을 진행했다. 과수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며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예방

만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한 식물방역법상 국가감역병으로 지정돼 100구 이상 과원에 과수화상병이 6구 이상 발생하거나, 100구 이하 과원에 5% 이상 발생 때 매몰하는 강경조치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군 중심이 활발해지는년부터 여름까지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각 농가에서도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등 농가 실천사항의 준수하고 의심주 신고를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아이유플러스, 국내 독보적 레이더 기술 자랑

신 4차 혁명시대 선두주자 2~3년간 한국판뉴딜 추진 고품질 대량생산 기술 경험

레이더의 혁신기술로 국내시장을 이끄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발전 성장이 바뀌어 가며 글로벌 범용도 도약에 속도를 내는 중소기업이 있다. 바로 ㈜아이유플러스(IUPLUS, 대표 최두현)다. 국내 독보적인 레이더 기술력으로 신 4차 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아이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 설립한 후 그 이듬해인 2013년 10월 레이더 센서관련 특허를 등록했으며 2014년 9월 신형인 도약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인양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인양창조산업진흥원 704호)에 소재한 ㈜아이유플러스는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 지난 2015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신기술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9월 국토부장관상도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또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 방송분야 우수성과 창출기성 상을 수상했다.

㈜아이유플러스는 레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도 불려왔다. 스마트 레이저센서 분야의 스마트시티(교통·주차), 스마트팩토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충돌방지·탐색자 감지·레이더추적)을 비롯, 바이탈 레이저센서는 사물기반복지(국도부·보건복지부 안심센서·스마트홈·아파트), 스마트헬스(심장질환·만성폐질환)의 응용으로 주목 발전시켜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유플러스는 바이탈 센서 응용 분야의 비접촉식 바이탈 센서 및 신호 검출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심박, 호흡, 혈압, 체온, 산백반이도, 움직임 측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도로, 횡단보도, 보행로 교통센서 등 다양하게 교통응용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기술이다. 무선기술로 물리적인 현상을 디지털 라이징해 지능형 유비쿼터스 센서 기술과 제품을 One-Stop Solution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2~3년간 '한국판뉴딜주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품질의 대량생산 기술이 곧 아이유플러스만의 경쟁점이다.

인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부천소사뿔, 온라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자국어로 제작된 교재 무료 제공

경기 부천시소사뿔시는 '21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17일 밝혔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불행이 장기화되면서 체류외국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운전면허 취득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접촉 활동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운전면허교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학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재를 무료로 제

공해주고 표지판 문제 및 동영상 문제 등의 해석과 교육을 통해 한국의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과의 소통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외국어 전문위원 이혜민 경장이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정방원 서장은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다각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세종교육청,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교육

시스템 사용자 대상 업무 능력 제고

세종교육청은 17일 보람고등학교에서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사용자들에게 EDS 실습 교육을 통하여 교육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통계성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 소개 및 기능 안내를 시작으로 통계조회 및 통계 보고서 생성 실습, 빅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EDB) 소개 및 기능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사용자들의 통계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해 행정업무 경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계 관련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민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새 삶 기회 주는 것”



법원이 길거리에서 민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했다.

“큰 죄지만 그동안 건설하게 살아와 장기간 사회회귀 형벌 목적 부작함”

의 딸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고,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내놴

유형·소속직원 책무 강화 명시

강원 양양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막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자 보호를 위한 상급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 구성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사건 은폐 또는 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철회 또는 가해자의 합의 중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 합동단속

해경·시군과 내달 24일까지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인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1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시 빙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논란 관련 고양시 “경기도 감사 환영”

현시장 취임 6년전 매각된 부지 헐갈 의혹에 “최우선 감사” 지시

경기 고양시가 17일 ‘킨텍스 부지 헐갈 매각’ 논란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내린 ‘감사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내놴다.

이 번이 무산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전임 고양시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 모씨 등 300명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또 2015년 1월에는 338명의 시민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 받았다.



“호텔 진입로 문제 해결하라”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17일 속초시청 앞에서 경매 낙찰자가 차단한 호텔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로 118억 ‘꿀꺽’

경기남부경찰청, 수입차·부동산 등 넘은 범죄수익의 40억 몰수보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18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

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산책나간 60대 장애인 실종·경찰 공개 수사

경기 부천시에서 산책을 하겠다고 나선 60대 지적장애인이 사흘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향했다.

SNS로 만난 초등생, 후대위 성추행 20대 검거

SNS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폭행한 30대 남 검거

3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ublic health advertisement for COVID-19 prevention. It features the title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COVID-19 Vaccination National Action Guidelines) and four key points: 1. Get vaccinated if you have no symptoms. 2. Wait 15-30 minutes after vaccination. 3. Stay at the site for at least 3 hours. 4. Report symptoms like fever or rash. It also includes a QR code for more information and the slogan 'Mask wearing, distance, hand washing, etc. continue to maintain personal prevention measures.'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동정

바르게살기 도의 교실 김동일 총남 보령시장은 18일 오전 10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 도의 교실에 참석.

주요현안공유 분야별 간담회 심규연 강원 동해시장은 18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장 및 주요현안공유 분야별 간담회에 참석.

대한랜드볼협회 간담회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집무실에서 대한랜드볼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서부동 통통 민원 소통의 날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18일 오후 3시 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통통 민원 소통의 날'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귀농귀촌학교 17기 수료식 김동곤 총남 청양군수는 18일 오전 11시 30분 화성면 소재 군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청양군 귀농귀촌학교 17기 수료식에 참석.

농협 사업 활성화 교육 황선봉 총남 예산군수는 18일 오전 10시 예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예산농협 사업 활성화 교육에 참석.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18일 오전 11시 정선읍에서 열리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행사에 참석.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는 18일 오전 10시 죽왕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에 참석.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도의 교실 운영 총남 보령시는 17일부터 2일간 보령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바르게살기 회원과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의 교실(사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도의 교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7일에는 관중의 액션리빙디자인센터 소장을 초청해 '나 정도(正道) 살자'라는 주제로 스스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칭찬에 대해 교육했다.

18일에는 김주현 한국 액션리빙센터 소장을 초청해 '나 정도(正道) 살자'란 주제로 시와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원주소방본부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강원 원주소방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이 17일 열렸다.

이 어린이집은 교대 및 비상근무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육아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추진했다.

원주시내 18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비 90%(20억)와 도비(3억) 등 총 23억의 건축비를 투자해 철근콘크리트 2층 연면적 708㎡ 규모로 정원 40명으로 인가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원주/ 안종률기자 yahn@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서부발전,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선정

“코로나로 더 어려운 취약층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의 1호 기부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부발전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극복 협력사업'의 협약을 시행하고 55억 원의 사업비를 기부한 바 있다. 올해는 7억 9000만 원을 기부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서부발전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7억9000만 원의 사업비는 충남, 경북, 인천, 군산, 김포 등 서부발전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건강, 교육 및 고용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재섭 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 부사장은 “올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업비 기부로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서부발전이 사회백신 1호 기부자로 참여해주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왼쪽부터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송재섭 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 부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서부발전 제공>

인양창조산업진흥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팔견었다

인양고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경기 인양창조산업진흥원은 경기도인양고교교육지원청과 '메이커스페이스사업' 및 '진로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협력 협약을 최근 인양창조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은 시민은 물론 특히 관내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구, 멘토,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제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메이커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진로체험 기회 및 제조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인재 육성을 통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직업고등학교와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혁신적인 메이커 창업가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양/ 배진식기자 baejs@jeonmae.co.kr



경기 인양창조산업진흥원은 경기도인양고교교육지원청과 '메이커스페이스사업' 및 '진로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양창조산업진흥원 제공>

김흥규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산학내 협력 및 연계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시 청년 기업가 및 메이커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양/ 배진식기자 baejs@jeonmae.co.kr



인천 최초 '청년친화형대상' 수상

인천 남동구가 국회사무처 소관(사) 청년과 마라가 주관한 '2021 청년친화형대상'에서 인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에 선정(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열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푸름이 JOB CON 운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년미디어위원회 통해 청년들의 미디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 꿈꾸고 도전하는 남동구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필근기자 wk-ok@jeonmae.co.kr

“다양한 가족형태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이선구 경기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제 35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대진구·부천2·시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다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물용 달라며 덴탈마스크 5만장을 기탁했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강원랜드 “어르신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행복 나눔 꾸러미 200세트 전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관내나루베게와 인견이보로 구성된 ‘행복 나눔 꾸러미’ 200세트를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전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 나눔 꾸러미’는 비대면 가족 봉사활동인 ‘하이원 공감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강원랜드 임직원 및 가족 400여 명이 참여해 폐광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며 관내나루베게 200개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인견이보 200세트를 구매해 ‘행복 나눔 꾸러미’를 완성했다.

이에 삼규호 부사장과 참가자들은 17일에는 영월군청, 정선군청을 18일에는 태백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어린이안심 승하차장 전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전남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전남 성호2-1차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안심 승하차장 1호 전달식(사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안심 승하차장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동주택 내 승하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아이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승하차장은 보육시설 등·하원 시 차량을 대기하는 공간으로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 방난방기, 자동문, CCTV,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갖가지 날씨에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제작했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포토뉴스



순천대,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 분야 우수경정기관 선정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업센터는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 분야에서 전국 29개 기관 중 전국 최초 ‘우수경정기관’으로 선정돼 검정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전국공무원노조 강원 정선군지부는 17일 일제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서천군 임업후계자·표고버섯연구회, 후원금 기탁

충남 서천군 임업후계자·표고버섯연구회는 전발 앞으로 투병중인 쌍둥이 환아 가족에 후원금 200만원을 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행복스타봉사단, 경산시에 덴탈마스크 5만장 기탁

행복스타봉사단은 최근 경북 경산시를 찾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물용 달라며 덴탈마스크 5만장을 기탁했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경기복지재단-시·군 복지재단 업무협약

경기 가평군복지재단과 경기도내 6개 시·군 복지재단이 최근 지역복지 활성화와 질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지유출연명 광택시회,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전달

한국자유총연맹 광택시회(회장 최인)가 최근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일환으로 광택시 23개 읍면동 관내 취약계층 약 100여 가구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광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흥성폴리텍대학, 가스공사 당진지간선내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흥성캠퍼스는 최근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당진지간선내 지역인재 양성사업 업무협약을 가졌다. 흥성/ 최성희기자 sgchoi@jeonmae.co.kr



김인영 경기도의원, 이천쌀 전국 첫 배기 행사 참석

김인영 경기도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대진구·이천2)은 최근 이천시 호법면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배기' 행사에 참석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군량미를 지키던 장소에서,
현재는 국민의 데이터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이 곳은 KT 용산 IDC 입니다

DIGICO KT

태조 4년(1395년)부터 전국의 군량미를 보관하던 장소인 '군자감 강감 터'는 현재(2021년) KT 용산 IDC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 용산 IDC는 국내 최대 테라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Cloud / BigData / 5G 대용량 트래픽 전송이 보장되며, 10만대 서버 운영이 가능한 서울권 최대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급 데이터센터 입니다